

## 선별적 인공유산의 결정인자에 관한 비교연구\* 대구지역과 미국 캘리포니아 베이지역

김한곤\*\*

본 연구의 목적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속되고 있는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출생시 성비불균형현상 가운데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불균형 정도가 심각한 대구지역의 출생시 성비불균형의 원인을 경험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사회적·문화적·환경적 여건이 서로 다른 미국으로 이민하여 캘리포니아의 베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동포 기혼여성들의 성차별의식, 아들선호도, 태아성감별, 인공유산 등 출생시성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요인들을 대구지역의 기혼여성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는 대구지역과 미국 캘리포니아 베이지역에서 거주하는 25~44세 사이의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내용을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대구지역의 기혼여성들이 미국 베이지역의 한국동포 기혼여성보다 성차별을 더 많이 느끼고 있으며 아들선호도 역시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아들을 낳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임신 전부터 아들을 낳기 위한 시도는 대구지역 기혼여성들이 베이지역 한국동포 기혼여성들보다 2배 정도 더 높으며 태아의 성감별 후 여아로 판명되어 인공중절수술을 실시한 비율은 무려 여섯 배를 능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출생시 성비불균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경험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도입한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대구지역의 경우 성차별 정도, 아들선호도, 성감별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베이지역의 경우 연령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우리는 대구지역의 출생시 성비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타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강하게 남아있는 유교적 전통에서 비롯되는 아들선

\* 본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교수해외파견 연구비 지원금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혀둡니다. 본 논문의 초고에 대해 유익한 지적을 해주신 논평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호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아들선호는 사회계층, 연령, 교육수준의 차이를 막론하고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인구, 조직, 기술 및 환경으로 이루어지는 생태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생태계의 어느 한 부분이 변화하게 되면 그 결과 전체체계의 균형이 깨어지고 조화를 잃게 되며, 이러한 상태의 불균형과 부조화를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이 여러 면에서 나타난다(권태환·김두섭, 1990).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인간 역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제반의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거나 변화의 폭이 클 때 그러한 변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의외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어느 한 부분의 변화에 따른 여파는 일정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변화를 경험하는 기간이 오래 지속될수록 그 파급효과는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

1960년대 초에 약 2.8%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을 보였던 우리 나라는 정부의 강력한 인구억제정책의 성공과 사회경제발전의 영향으로 1980년대 후반에는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1%에 이르게 되었으며 1990년대 초에는 0.9%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다(김한곤, 1994b). 그러나 인구성장의 속도가 급속하게 둔화되면 연령별 인구의 변화가 심화되고 심한 경우에는 연령계층별 단절현상까지도 유발하게 되며 (Freedman, 1986; Weeks, 1986), 이러한 인구현상의 변화는 사회 모든 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주학중·김태현, 1994). 특히 남아에 대한 선호사상이 강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출산수준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면 소규모 가족규모 속에서 아들 하나는 낳아야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태아의 선별적 인공중절수술을 강행하여 출생시 성비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그 결과 성 및 연령별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며 장래에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출생시 성비는 106 내지 107의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 들어와

더욱 심화되어 1995년 현재 113을 나타내고 있다(표2 참조). 특히 1980년대 말 이 후부터 1995년까지의 출생시 성비를 광역행정별로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지역이 113에서 117을 나타내고 있는 데 반해 대구와 경북지역은, 1995년에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1994년까지만 하더라도 125를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2 참조).

이와 같이 10년 가까운 기간동안 출생시 성비불균형이 계속 심화된 결과 오늘날 10세 전후의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들의 경우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절대적으로 많으며, 이러한 현상은 초등학교 1, 2학년이나 유치원 및 유아원과 같이 연령이 낮아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이 결혼 적령기에 도달하게 되는 2007년경부터는 결혼적령기 남성의 약 25%가 배우자를 찾을 수 없는 여성수의 절대적인 부족이 예상된다(김한곤, 1994b). 뿐만 아니라 노동력 공급, 노인복지, 결혼 및 가족관의 변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김태현, 1993; 김한곤, 1995).

지금까지 알려진 한국사회의 출생시 성비불균형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아들을 선호하는 강한 인식의 산물을 들 수 있으며, 둘째는 소규모 가족관이 형성된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적어도 아들 하나는 낳아야겠다는 강한 집념이 초음파기와 같은 현대의료기구의 보급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실행수단 이용의 용이성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심화된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출생시 성비불균형현상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대구지역의 출생시 성비불균형의 원인을 좀더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구지역과 미국 캘리포니아 베이지역에 살고 있는 25~44세 사이의 한국동포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출산시 성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 분석하여 사회·문화·환경적 여건의 차이가 출생시 성비불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볼 것이다.

즉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본 연구의 자료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출생시 성비불균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별적 인공유산의 결정인자들을 좀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며, 이러한 작업은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2. 출생시 성비불균형에 관한 문헌연구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국내의 출생시 성비불균형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좀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인구학자, 사회학자, 그리고 예방의학자 등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 의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수행된 출생시 성비불균형과 관련된 연구들 중에서 본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문헌들을 요약·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하룡과 박재용은 1984년에서 1987년까지 4년 동안에 대구시의 5개 종합병원의 출생아를 대상으로 성비불균형 실태를 파악한 바 있는데 이들은 1985년 이후부터 출생시 성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모의 교육수준, 종교, 남편의 직업 등은 성비불균형과 그다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모의 연령과 출산순위, 그리고 생존자녀의 성구성은 성비불균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지하룡·박재용, 1988). 김일현(1990)은 그의 연구 "우리 나라의 출산성비분석"에서 출생시 성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상자녀수, 현존아들수, 현존딸수, 그리고 거주지를 들고 있다. 그러나 박경애(1993)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산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임신부의 임신경력, 자녀의 수, 직업의 유무, 교육수준, 소득, 경제수준, 종교, 배우자의 직업 및 교육수준의 차이와 관계없이 조사대상자들은 남아를 선호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일현과 그의 동료들(1990)은 "남아선호의 결정요인 및 영향력 분석" 연구에서 남아선호도는 사회·인구학적 및 경제적 요인 등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아들의 필요성은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아들을 선호하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아들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남아선호도는 생존자녀수와 아들의 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빈과 조남훈(1994) 그리고 이홍탁(1987)에 의하면 태아의 성이 가족의 크기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딸일 경우 아들을 낳기 위하여 가족의 크기가 커질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세권 등(1992)이 1991년에 행한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 연구에 의하면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약 41%이며 그 이유로는 가계의

계승이 42.2%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아들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4.2%로 경제적·물질적 이유보다는 심리적 이유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학중과 김태현이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한국의 출생시 성비불균형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강한 소자녀관의 바탕 위에서 이상자녀수를 낳을 때까지 기다린 후에 남아 출산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자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남아출산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89년에서 1991년 사이에 한국에서 출생한 남아들의 경우 남아 1,000명 중에서 68명이 인공중절을 거쳐 태어났음을 밝히고 있다(주학중·김태현, 1994). 뿐만 아니라 매년 약 35,000명의 임산부가 성감별검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이 성감별검사를 받을 경우 적어도 2회 이상의 검사를 거쳐 인공중절수술을 결정하게 되므로 총감별검사 건수는 매년 약 7만건이 이루어진다고 추정하고 있다(주학중·김태현, 1994).

남아를 선호하는 현상에 대하여 사회학 및 심리학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단히 이루어져 오고 있는데 이들에 따르면 특정한 현상에 대한 인간의 일반적인 태도는 근본적인 가치체계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제도 전반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가 근대적일 때 그것은 소자녀관을 지향하는 가족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근대적 사고틀이 강화될수록 남아선호사상 역시 약화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상북도지역을 대상으로 행위, 직업, 퍼스낼리티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스테레오타입의 정도를 조사한 이홍탁과 최인현(1982)의 연구결과는 남아선호관은 여성을 천하게 여기고 남자를 중하게 여기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김한곤(1994a)은 대구·경북지역의 출생시 성비불균형이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은 원인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첫째, 조선시대 초엽부터 17세기 중엽까지 한양에서 고관대작을 지내던 많은 영남출신 양반들이 당쟁에서 패한 후 낙향하여 농경중심의 사회에서 토호로서 지역사회를 통제하고 행세하게 되었다(이수건, 1979). 이러한 과정에서 생겨난 강력한 가부장제 전통에 의한 아들 선호의식이 도시화되고 산업화된 현재까지도 다른 지역보다 강하게 남아있다는 점이다. 둘째, 1962년 5월 군사혁명 이후 30여 년 동안 대구·경북지역 출신이 정부의 수뇌로 집권해 왔으며 그 기간동안에 정부의 중요한 권력기관에 이 지역출신

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진출하여 권력과 부와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지역 사람들은 아들이 서울에서 출세하여 권력과 부와 사회적 명예를 누리는 것을 생활주변에서 빈번하게 보아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일들이 몇십 년간 계속되는 동안에 아들의 중요성과 아들이 있어야 나중에 아들을 통하여 가족과 집안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무의식중에 가지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식구조는 결과적으로 선택적 인공중절수술과 같은 인위적인 방법을 통한 아들 낳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 오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출생시 성비불균형에 관한 관심과 연구들이 꾸준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 이들 연구 가운데 특히 관심이 많이 가는 연구들은 세계인구의 약 22%를 차지하는 중국의 성비불균형에 관한 연구와 1980년대 후반부터 출생시 높은 성비를 경험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을 들 수 있다.

젱위와 그 동료들(Zeng Yi, 1993)에 의하면 중국의 경우 1988년부터 출생시 성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출생시 성비가 높아지는 일차적인 이유는 소규모 가족관에서 남아를 선호하는 의식에서 출발하며 그 다음은 태아의 성감별을 통한 인공중절수술을 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한국과는 다르게 여자유아의 살해와 여자아이의 출생을 숨기는 것이 공식적인 성비불균형의 부분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Hull, 1990; Johansson and Nygren, 1991).

아시아지역의 몇몇 국가들의 출생시 성비불균형은 사회경제발전, 인구정책, 출산력의 급속한 감소, 그리고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서 기인되며 출생시 성비불균형 문제는 출산자녀수의 감소만을 강조한 결과 출산력이 급속하게 떨어지면서도 아들 선호도가 여전히 뚜렷하게 남아있는 문화권에서 일어나는 경향이 강하다(Gu, 1994). 학자들 중에는 출생시의 성비불균형현상을 근대화가 충분히 진행되면 궁극적으로는 사라지게 되는 변천기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만이나 한국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경제발전이 이러한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이나 중국과 같이 급속한 출산력의 감소를 경험한 나라에서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문화적인 요인이 출생시 성비에 훨씬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Gu, 1994).

중국에서 관찰된 출생시 성비불균형은 ‘한자녀낳기’ 인구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두 자녀를 허용하는 인구정책이 수용된다고 이러한 문

제가 해결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Gu and Li, 1994). 그 이유는 대만과 한국의 경험에 의하면 출생시 성비불균형현상이 첫번째 아이의 출산 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두번째 아이의 출산 후에 나타나는 점을 들 수 있다.

바람직한 가족규모에 관한 규범의 변화와 함께 출산율의 급속한 감소는 출생시 성비불균형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태국과 같이 아들선호가 없는 문화권에서는 출생시 성비불균형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출생시 성비불균형은 문화적 배경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즉 자녀양육에 있어서 아들을 선호하는 현상은 사회전체로 볼 때 성차별을 반영하는 것이며 그러한 현상은 사회의 제도적인 면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난다(Gu, 1994).

성비불균형과 관련된 좀더 심각한 문제는 성비불균형현상 자체가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여아출생이나 여자영아에 대한 차별은 여성의 본질적인 권리와 아동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항이다(Poston et al., 1995). 아들선호가 강할수록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사실이 많은 나라들에서 발견되었으며 여성들을 차별하는 것은 고용의 기회, 학교입학, 상속, 가정과 사회에서의 권리행사 등 많은 분야에서 존재하고 있다(Gu, 1994; Vlassoff, 1991; Desilva, 1992).

그러므로 지금까지 언급한 참고문헌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연구모형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급속한 출산율 감소를 경험하는 사회라 하더라도 태국과 같이 아들선호의식이 없는 사회에서는 출생시 성비불균형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며 단지 아시아지역에서도 한국, 대만, 중국 등과 같이 유교적 영향권에 속하는 몇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출생시 성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요약해 보면 교육수준, 소득, 종교 및 직업에 따라 출생시 성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Vlassoff, 1991; Desilva, 1992; Gu, 1994; Poston, 1995). 특히 우리나라의 출생시 성비불균형의 원인들을 규명한 연구들에 따르면 연령, 소득, 교육정도, 주성장지, 성차별, 남아선호도, 그리고 아들을 낳기 위한 노력 등이 출생시 성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하룡·박재용, 1988; 이홍탁, 1987; 김일현, 1990; 공세권 외, 1992; 박경애, 1993; 주학중·김태현, 1994; 김한곤, 1994b; 김한곤, 1995).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이러한 변수들을 바탕으로 대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기혼여성들과 대구출신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베이지역으로 이민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인공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자들의 차이를 밝혀 보고자 한다.

### 3. 자료 및 연구방법

#### 1) 자료

본 연구의 자료는 정부의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기존의 통계자료와 대구지역과 미국 캘리포니아 베이지역에 배포하여 수집한 설문자료로 이루어져 있다. 즉 2차적 자료로는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제1권 전국편과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년 인구동태통계연보 등이 사용되었다.

대구지역의 설문자료는 1995년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약 3주에 걸쳐 대구시내의 7개 행정구역을 인구비율로 나누어 700부를 배포하여 579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가운데 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15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나머지 564부가 이용되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베이지역의 설문자료는 1995년 11월 4일부터 1996년 1월 30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베이지역에 소재하는 한국인 교회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큰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천주교회에 400부를 배포하여 136부가 회수되었으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고려하여 베이지역에서 한국인이 경영하는 대표적인 세 곳의 슈퍼마켓에 200부를 배포하여 52부가 회수되었다. 그러나 회수된 총 188부 가운데 자료로 처리하기에 부적절한 21부를 제외하고 자료로 이용 가능한 설문 167부로 구성되어 있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결혼한 여성 개인이므로 이들이 출산한 자녀의 성비를 종속변수로 하여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작업은 출생시의 성비불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의도와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아들을 낳기 위하여 실제 노력을 기울이는 당사자들은 기껏해야 3명 혹은 대부분의 경우 2명 정도의 소자녀관 속에서 아들 하나는 낳겠다는 생각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임신시 태아의 성감별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내아이를 낳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딸 한 명 정도는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들이 출산한 자녀의 성비 자체는 오히려 낮을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앞에서 논의하였던 여러 변수들을 출산아의 성비를 종속변수로 도입하여 회귀분석을 시도할 경우 여러 독립변수들은 이러한 부분들과 서로 상쇄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관성있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출생시 성비불균형에 가장 직접적인 결정요인에 해당하는 선별적 인공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을 규명하여 대구지역의 출생시 성비불균형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 (1) 가설설정

이러한 맥락에서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난 10년 동안에 대구지역의 출생시 성비는 자연상태의 출생시 성비와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1995년을 제외한 지난 약 5년 동안의 출생시 성비는 1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출생시 성비의 지나친 불균형은 1차적으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남아있는 유교적 문화의 특성의 하나인 남자를 중히 여기는 전통적 의식 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며, 2차적으로는 이러한 강한 아들선호의식이 현대의 료기술의 힘을 빌어 소가족 규모 속에서 아들 하나는 낳겠다는 실행의지와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문화가 서로 다른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동포 기혼여성들과 대구지역 기혼여성들의 아들선호에 대한 의식구조와 선별적 출산에 관하여 경험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대구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출생시 성비가 높은 이유를 부분적으로 밝힐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미국의 특정 지역에서 그것도 대구출신만을 뽑아서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 가능한 관계로 베이지역에서는 대구출신 기혼여성만을 국한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출생하여 이민하여 생활하고 있는 한국동포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앞에서 논의하였던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대구지역 기혼여성들의 선별적 인공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설정한 일반가설은 다음과 같다. 즉 아들선호의 동기, 아들을 낳기 위한 노력 등이 대구지역의 기혼여성들의 선별적 인공유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베이지역의 결혼한 한국동포 여성들에게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의 세부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즉 아들선호의 동기화를 나타내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아들의 필요성, 아들을 낳기 위한 노력에 해당하는 임신 전 아들낳기 노력과 임신 후의 태아 성감별 등은 대구지역 기혼여성들의 선별적 인공증절수술과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베이지역 한국동포 여성들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을 것이다.

## (2)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아들선호의 동기화를 나타내기 위하여 여성에 대한 성차별 인식정도와 아들선호도의 두 가지 요인을 도입하였다.

**성차별 인식정도** 아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으나 그 중에서도 남성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여성은 차별하는 사회 전반에 걸친 문화적 배경이 아들을 선호하게 되는 기본동기가 된다는 전제하에 여성에 대한 차별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도입한 다섯 가지 항목의 5점 척도의 합계로 측정하였다.

**아들선호도** 아들을 선호하는 아들의 필요성을 가늠하기 위하여 사용된 5점 척도의 합계점수로 측정하였다.

성차별 정도와 아들선호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도입한 각각의 다섯 가지 변수들로 구성된 지수들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크론바의 알파값으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0.85와 0.87의 값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을 낳기 위한 노력은 아들을 선호하는 단계에서 한걸음 진전하여 아들을 낳기 위하여 행동을 실천하는 단계로서 두 형태로 구분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 1) 임신 전에 아들을 낳기 위한 노력
- 2) 임신 후 태아의 성감별

본 연구에 도입된 통제변수는 응답자의 연령,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응답자의 교육수준, 남편의 교육수준, 응답자의 주성장지 등이다.

### (3) 종속변수

종속변수로 도입된 아들의 선별출산은 아들을 낳기 위한 목적으로 태아를 성감별 후 선별적 출산이 가능토록 하는 인공중절수술의 시행여부로 측정되었다.

### 3) 분석단위 및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에 응한 개인들을 분석단위로 사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적 통계를 도입하였다. 자료의 제약으로 경로분석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도입된 연구모형들을 경험적으로 검정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 4.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 (1) 대구지역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표1은 대구지역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응답자들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30대가 44%로서 가장 많으며 평균연령은 약 35세이다. 남편의 연령 역시 30대가 약 51%로서 가장 많으며 남편들의 평균연령은 38.5세로 응답자들의 평균연령보다 약 3.5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중졸 이하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55.5%로 가장 많으며 평균교육연한은 약 13년이다. 반면 배우자들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약 52.5%로 가장 많으며 평균교육연한은 14.2년이다. 응답자들의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약 65%가 전업주부이며 전체 응답자들의 약 35%만이 가정 외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판매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3%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들의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35.6%로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문관리직 종사자가 18.2%로 높으며 관리직과 판매서비스직 종사자가 각각 15.8%와 14.5%로 그 다음 순위에 해당한다.

표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 대구지역     |     |      | 미국 캘리포니아 베이지역 |     |      |
|-----------|----------|-----|------|---------------|-----|------|
|           | 구분       | N   | (%)  | 구분            | N   | (%)  |
| 연령        | 29세 이하   | 136 | 24.9 |               | 15  | 9.0  |
|           | 30~39세   | 241 | 44.0 |               | 104 | 62.3 |
|           | 40~49세   | 170 | 31.1 |               | 48  | 28.7 |
|           | 평균 35.09 |     |      | 36.41         |     |      |
| 남편의 연령    | 29세 이하   | 36  | 6.6  |               | 4   | 3.0  |
|           | 30~39세   | 280 | 51.3 |               | 82  | 49.1 |
|           | 40~49세   | 233 | 42.1 |               | 75  | 47.9 |
|           | 평균 38.53 |     |      | 39.61         |     |      |
| 응답자의 교육정도 | 9년 이하    | 302 | 55.5 |               | 37  | 22.4 |
|           | 10~12년   | 57  | 10.5 |               | 28  | 16.9 |
|           | 13년 이상   | 190 | 34.0 |               | 102 | 60.6 |
|           | 평균 13.05 |     |      | 14.24         |     |      |
| 남편의 교육 정도 | 9년 이하    | 219 | 40.2 |               | 30  | 18.0 |
|           | 10~12년   | 40  | 7.3  |               | 19  | 11.4 |
|           | 13년 이상   | 290 | 52.5 |               | 118 | 70.7 |
|           | 평균 14.21 |     |      | 15.27         |     |      |
| 응답자의 직업   | 전문직      | 28  | 5.1  |               | 15  | 9.0  |
|           | 관리직      | 16  | 2.9  |               | 4   | 2.4  |
|           | 전문기술직    | 34  | 6.2  |               | 28  | 16.8 |
|           | 사무직      | 30  | 5.5  |               | 15  | 9.0  |
|           | 생산직      | 13  | 2.4  |               | 16  | 9.6  |
|           | 판매·서비스직  | 71  | 13.0 |               | 20  | 12.0 |
|           | 주부       | 354 | 64.8 |               | 69  | 41.3 |
| 남편의 직업    | 전문직      | 42  | 7.7  |               | 22  | 13.4 |
|           | 관리직      | 86  | 15.8 |               | 21  | 12.8 |
|           | 전문기술직    | 99  | 18.2 |               | 59  | 36.0 |
|           | 사무직      | 194 | 35.6 |               | 15  | 9.1  |
|           | 생산직      | 33  | 6.1  |               | 14  | 8.5  |
|           | 판매·서비스직  | 79  | 14.5 |               | 31  | 18.9 |
|           | 농업       | 8   | 1.5  |               | 0   | 0    |
|           | 무직       | 4   | 0.7  |               | 2   | 1.2  |

| 가구당 월평균 소득 | ₩1,940,000 |     | \$5,300 |     |      |
|------------|------------|-----|---------|-----|------|
| 종교         | 기독교        | 100 | 18.3    | 94  | 56.3 |
|            | 천주교        | 72  | 13.2    | 59  | 35.3 |
|            | 불교         | 199 | 36.5    | 5   | 3.0  |
|            | 무교         | 171 | 31.4    | 9   | 5.4  |
|            | 기타         | 3   | 0.6     |     |      |
| 남편의 종교     | 기독교        | 68  | 12.4    | 87  | 52.1 |
|            | 천주교        | 54  | 9.8     | 46  | 27.5 |
|            | 불교         | 160 | 29.1    | 4   | 2.4  |
|            | 무교         | 260 | 47.4    | 29  | 17.5 |
|            | 기타         | 2   | 0.4     |     |      |
| 주성장지       | 대도시        | 246 | 45.1    | 115 | 69.0 |
|            | 중·소도시      | 124 | 22.7    | 42  | 25.0 |
|            | 농·어촌       | 176 | 32.2    | 10  | 6.0  |
| 초혼연령       | 24.6       |     | 26.0    |     |      |
| 평균아들의 수    | 1.04       |     | 0.92    |     |      |
| 평균딸의 수     | 0.89       |     | 0.90    |     |      |
| 이상적인 아들의 수 | 1.22       |     | 1.45    |     |      |
| 이상적인 딸의 수  | 1.13       |     | 1.43    |     |      |
| 낙태         | 1.48       |     | 0.84    |     |      |
| 첫째아 성비     | 102.0      |     | 101.30  |     |      |
| 둘째아 성비     | 118.6      |     | 105.10  |     |      |
| 셋째아 성비     | 200.0      |     | 91.1    |     |      |
| 넷째아 성비     | 433.3      |     |         |     |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1,940,000원으로 도시가구당 평균소득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들의 종교유형을 보면 불교신자가 36.5%로 가장 많으며 종교가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1.4%이며 그 다음으로는 기독교와 카톨릭신자들로서 18.3%와 13.2%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한편 남편의 종교는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47.4%로 가장 많으며 불교신자가 29.1% 기독교와 카톨릭신자가 각각 12.4%와 9.8%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주로 성장한 지역을 보면 대도시에서 주성장기를 보낸 사람이

45.1%로 가장 많으며 농·어촌에서 주성장기를 보낸 사람들이 32.2% 그 다음은 중·소도시로서 22.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평균 초혼연령은 24.6세이며 조사 당시 이들의 평균자녀수는 1.93명이며 아들 1.04명 딸은 0.89이다. 또한 이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수는 약 2.35명으로 응답했다. 응답자들의 평균인공유산횟수는 1.38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자녀출생 순위별 성비를 살펴보면 첫째아의 성비는 102.0이며 둘째아는 118.6이며 셋째와 넷째는 200.0과 433.3으로 둘째아부터 출생시 성비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셋째아부터는 성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미국 캘리포니아 베이지역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미국 캘리포니아 베이지역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들의 연령분포는 30대가 62.3%로서 가장 많으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36.4세로 나타났다. 남편의 연령 역시 30대가 49.1%로 가장 많으며 평균연령은 39.6세이다.

응답자들의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전문대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이 약 61%로 가장 많으며 평균교육연한은 약 14.2년을 보이고 있다. 남편의 교육수준은 더욱 높아서 약 71%가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평균교육연한은 15.3년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직업 역시 가정주부가 41.3%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전문기술직 16.8%, 판매 및 서비스직의 12%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대구지역 응답자들의 약 65%가 전업주부인 것과 비교하면 베이지역 응답자들이 가정 외의 일을 갖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남편의 직업분포는 전문기술직이 36.0%로 가장 높으며 판매서비스직이 약 18.9%, 전문직 13.4%, 관리직 12.8% 순이다. 이들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300달러로서 비교적 높은 소득을 보이고 있다.

응답자들의 종교유형은 기독교신자가 56.3%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카톨릭 신자로서 35.3%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불교신자는 단지 3.0%에 불과하였다. 남편의 종교유형 역시 기독교신자가 52.1%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카톨릭신자가 27.5%이다. 그러나 남편의 경우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17.5%로서 응답자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베이지역 응답자들의 기독교 및 카톨릭신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미국사회가 기독교를 중

심으로 하는 사회이며 미국에 이민하여 살고 있는 동포들의 기독교성향이 높다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응답자들의 69.0%가 대도시에서 주성장기를 보냈으며 약 25.0%는 중소도시 그 나머지 6.0%만이 농어촌지역에서 주성장기를 보낸 것으로 응답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베이지역 한국동포들의 평균초혼연령은 26.0세로서 대구지역 응답자들의 평균초혼연령보다 약 1.4세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평균자녀수는 약 1.82명이며 출생아들의 성비는 102이다. 이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수로는 아들이 1.45명 떨어 1.43명으로 대구지역 응답자들의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수보다는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평균낙태건수를 보면 0.84건으로 대구지역 응답자들의 평균낙태건수보다 현저히 낮다. 출생순위에 따른 성비를 보면 첫째아의 성비는 101.3이며 둘째아는 105.1, 셋째아는 91.1로서 출생순위에 따른 성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 2) 성비불균형의 실태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0~4세 사이의 남녀성비를 전국적으로 비교해 볼 때 1960년에서 1985년까지 성비는 그다지 큰 변화가 없다가 1990년에 이르러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84년부터 1995년까지의 광역행정구역별 출생시 성비를 보여주는 표3을 살펴보면 1985년 이후부터 전국적으로 출생시 성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지역에 따른 성비의 차이 역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 전체를 두고 볼 때 1984년 출생시 성비 108.7에서 1995년에는 113.4로 증가하였다. 1984년을 기준으로 할 때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110 미만의 출생시 성비를 보인 반면 대구와 경북은 113.4와 113.3을 나타냈다. 그러나 비록 1995년의 출생시 성비가 120 이하로 낮아지긴 하였지만 대구시는 1985년 이후 1994년까지 계속해서 120 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경북 역시 1987년에만 118.6을 나타냈을 뿐 1994년까지 12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1993년까지 출생시 성비는 일관되게 105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시아인들의 출생시 성비는 중국인들의 성비가 108로 가장 높게 나타날 뿐 나머지 아시아인들의 출생시 성비는 107과 106수준을 보이고 있다(U.S. Dept. of Commerce, Economics and Statistics, 1995).

표2 0~4세 연령군의 지역별 성비(1960~1990)

|    | 1960  | 1966  | 1970  | 1975  | 1980  | 1985  | 1990  |
|----|-------|-------|-------|-------|-------|-------|-------|
|    | 0·4   | 0·4   | 0·4   | 0·4   | 0·4   | 0·4   | 0·4   |
| 전국 | 110.3 | 107.2 | 106.8 | 107.4 | 107.3 | 108.1 | 111.7 |
| 서울 | 105.4 | 107.0 | 107.2 | 108.0 | 107.9 | 108.8 | 110.2 |
| 부산 | n. a. | 107.7 | 107.3 | 109.5 | 107.8 | 108.6 | 111.6 |
| 대구 | n. a. | n. a. | 107.9 | 108.1 | 109.5 | 112.3 | 125.2 |
| 인천 | n. a. | n. a. | 107.0 | 106.7 | 106.5 | 107.6 | 107.4 |
| 광주 | n. a. | n. a. | 106.2 | 106.7 | 106.5 | 109.9 | 108.0 |
| 대전 | n. a. | 107.8 | 107.3 | 109.3 | 108.0 | 109.0 | 115.4 |
| 경기 | 103.4 | 106.2 | 106.2 | 107.4 | 107.3 | 106.5 | 108.0 |
| 강원 | 105.0 | 107.0 | 106.8 | 106.7 | 106.4 | 106.4 | 107.4 |
| 충북 | 105.0 | 108.3 | 107.6 | 108.0 | 108.4 | 107.0 | 111.1 |
| 충남 | 98.7  | 107.4 | 106.6 | 107.3 | 106.6 | 106.6 | 109.2 |
| 전북 | 107.0 | 107.0 | 105.3 | 106.2 | 106.1 | 106.7 | 106.6 |
| 전남 | 103.5 | 107.5 | 106.1 | 106.7 | 106.5 | 106.9 | 107.7 |
| 경북 | 105.9 | 108.1 | 108.1 | 109.0 | 107.8 | 109.0 | 121.7 |
| 경남 | 105.3 | 107.0 | 106.6 | 106.8 | 106.2 | 107.9 | 115.2 |
| 제주 | 104.2 | 103.0 | 105.2 | 105.0 | 106.0 | 108.2 | 111.0 |

자료: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표3 광역행정구역별 출생시 성비(1984~1995)

|    | 1984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
| 전국 | 108.7 | 110.0 | 111.9 | 109.0 | 113.5 | 112.1 | 116.9 | 114.0 | 114.0 | 115.6 | 115.3 | 113.4 |
| 서울 | 108.0 | 108.3 | 110.9 | 107.5 | 111.0 | 109.7 | 113.5 | 110.5 | 111.2 | 113.5 | 113.4 | 111.1 |
| 부산 | 105.6 | 109.2 | 112.2 | 107.8 | 112.1 | 111.4 | 118.8 | 116.3 | 117.3 | 118.7 | 118.9 | 117.3 |
| 대구 | 113.4 | 121.0 | 126.9 | 121.5 | 134.8 | 122.1 | 130.0 | 125.7 | 125.0 | 125.0 | 121.4 | 117.0 |
| 인천 | 106.3 | 108.5 | 110.3 | 105.4 | 110.2 | 107.3 | 112.4 | 108.3 | 108.0 | 111.8 | 114.6 | 112.7 |
| 광주 | 84.0  | 98.8  | 102.1 | 105.8 | 107.4 | 109.0 | 113.7 | 111.7 | 113.0 | 111.0 | 111.8 | 107.8 |
| 대전 | 88.5  | 87.5  | 91.6  | 100.0 | 116.8 | 123.1 | 123.1 | 113.8 | 114.9 | 120.0 | 116.5 | 114.6 |
| 경기 | 106.1 | 106.6 | 107.5 | 106.4 | 109.6 | 107.6 | 111.7 | 109.8 | 111.4 | 112.8 | 112.8 | 111.6 |
| 강원 | 107.0 | 108.7 | 106.9 | 105.5 | 108.6 | 110.3 | 113.8 | 110.5 | 111.7 | 115.9 | 114.7 | 112.8 |
| 충북 | 108.4 | 110.1 | 113.0 | 108.2 | 113.0 | 111.5 | 117.3 | 112.7 | 117.5 | 116.8 | 114.7 | 115.0 |
| 충남 | 110.2 | 108.9 | 110.1 | 109.2 | 114.3 | 110.9 | 117.4 | 112.9 | 116.2 | 114.5 | 116.2 | 111.8 |
| 전북 | 109.2 | 107.8 | 107.7 | 105.7 | 109.4 | 108.3 | 114.7 | 107.7 | 107.9 | 110.3 | 109.9 | 112.7 |
| 전남 | 109.8 | 105.9 | 111.0 | 107.3 | 112.3 | 110.2 | 114.6 | 111.4 | 110.3 | 114.5 | 112.9 | 111.5 |
| 경북 | 113.3 | 120.0 | 121.5 | 118.6 | 125.7 | 127.4 | 131.2 | 123.8 | 123.2 | 124.4 | 124.4 | 118.7 |
| 경남 | 107.9 | 109.9 | 114.3 | 112.8 | 119.3 | 117.7 | 124.1 | 117.7 | 120.6 | 121.7 | 120.1 | 119.3 |
| 제주 | 106.4 | 108.4 | 116.5 | 106.5 | 110.5 | 113.2 | 120.3 | 105.7 | 118.3 | 108.1 | 114.8 | 112.9 |

자료: 인구동태연보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 3) 성차별과 아들의 필요성

본 연구에 도입된 조사가설을 경험적으로 규명하기에 앞서 연구대상자들이 느끼고 있는 성차별 정도와 아들의 필요성 그리고 아들 하나는 꼭 있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보기로 하자.

성차별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도입한 사회에서의 성차별, 가정에서의 성차별, 가사결정권, 남자로 태어나고 싶은 정도, 아들을 통한 성공 등 다섯 가지 항목의 리커트(Likert) 척도점수를 대구지역과 베이지역 사이에 비교해 보면 대구지역이 전반적으로 높음을 표4를 통하여 알 수 있다. 특히 대구여성들이 베이지역 한국여성들보다 가정과 사회 전반에서 성차별을 훨씬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응답자들의 성차별에 대한 리커트 점수를 두 지역간에 t-test한 결과 대구지역의 응답자들의 평균 성차별 점수 20.31은 베이지역 응답자들의 성차별 점수 16.44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표5).

**표4** 성차별에 대한 리커트점수

|             | 대구지역  | 베이지역  |
|-------------|-------|-------|
| 사회에서 성차별    | 4.30  | 3.35  |
| 가정에서 성차별    | 3.69  | 2.54  |
| 결정관         | 3.08  | 2.53  |
|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 4.18  | 3.05  |
| 아들을 통한 성공   | 5.26  | 4.97  |
| 합계          | 20.31 | 16.44 |

**표5** 대구지역과 미국 캘리포니아 베이지역의 성차별 점수에 대한 t-test

| 지역            | N   | $\bar{X}$ | SE    | T    | df  | P     |
|---------------|-----|-----------|-------|------|-----|-------|
| 대구지역          | 394 | 20.31     | 0.217 |      |     |       |
| 미국 캘리포니아 베이지역 | 163 | 16.44     | 0.386 | 7.36 | 555 | 0.000 |

**표6** 대구와 베이지역의 아들의 필요성 및 아들낳는 노력에 대한 비교

|              | 대구지역 |     | 미국 캘리포니아 베이지역 |     |      |
|--------------|------|-----|---------------|-----|------|
|              | N    | (%) | N             | (%) |      |
| 아들의 필요성      | 있다   | 347 | 87.4          | 139 | 74.9 |
|              | 없다   | 69  | 12.6          | 28  | 15.1 |
| 아들을 낳기 위한 노력 | 있다   | 198 | 36.6          | 30  | 18.2 |
|              | 없다   | 343 | 63.4          | 135 | 81.8 |
| 태아의 성감별      | 있다   | 226 | 41.9          | 58  | 25.2 |
|              | 없다   | 313 | 58.1          | 107 | 64.8 |
| 성감별 후 낙태시도   | 있다   | 117 | 24.5          | 7   | 4.3  |
|              | 없다   | 359 | 75.5          | 157 | 95.7 |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구지역 응답자의 약 87.4%가 ‘아들 하나는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캘리포니아 베이지역 한국여성들의 약 75% 역시 아들 하나는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함으로써 이들 두 지역 여성들이 ‘아들 하나는 꼭 있어야 한다’는 의식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다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신 전 아들을 낳기 위한 노력여부에 있어서는 대구지역 사람들의 약 37%가 노력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미국의 경우 약 18%만이 아들을 낳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대구지역 응답자들의 임신 전 아들낳는 노력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임신 후 태아 성감별의 경우 대구지역 응답자들의 약 42%가 태아 성감별 경험이 있는 반면 베이지역 응답자들의 약 25%가 태아 성감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함으로써 태아의 성감별에 약 17%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태아의 성감별 후 낙태를 시도한 비율은 대구지역의 경우 24.5%인 데 비해 베이지역은 4.3%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미국의 베이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아들의 필요성과 아들을 한 명은 꼭 낳겠다는 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특히 실제로 아들을 낳기 위하여 노력하는 비율은 훨씬 낮아서 선별적 출산을 목적으로 성감별 후 인공중절수술을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는 것을 본 조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아들이 꼭 한 명은 있어야 하는 이유를 노후보장, 재산상속, 제사, 혈통잇기, 가문의 번성 등 다섯 가지 항목으로 물어본 결과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구지역이 베이지역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차이가 많이 나는 항목으로는 노후보장과 제사 지내는 이유 때문에 아들이 꼭 필요하다는 항목으로 대구지역은 3.48과 3.68을 각각 나타낸 반면 베이지역은 2.42와 2.46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은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노후보장제도가 잘되어 있으며 미국에 이민한 한국사람들의 경우 거의 과반수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기독교 신자들이며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민 후 몇 해가 지나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를 주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응답한 '아들이 한 명은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한 리커트 평균점수를 t-test한 결과 대구지역의 16.72는 베이지역의 리커트 점수 12.30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8). 이러한 결과는 이들 두 지역간에 있어서 대구지역 응답자들이 느끼는 성차별정도와 아들 하나는 꼭 있어야 한다는 의식이 베이지역의 한국여성들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표7 '아들이 꼭 한 명은 있어야 한다' 항목의 리커트 점수

|        | 대구지역  | 베이지역  |
|--------|-------|-------|
| 노후보장   | 3.48  | 2.42  |
| 재산상속   | 2.87  | 2.42  |
| 제사     | 3.68  | 2.46  |
| 혈통잇기   | 3.95  | 3.38  |
| 가문의 번성 | 2.74  | 2.22  |
| 합계     | 16.72 | 12.30 |

표8 대구지역과 미국 캘리포니아 베이지역의 아들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t-test

| 지역            | N   | $\bar{X}$ | SE    | T    | df  | P     |
|---------------|-----|-----------|-------|------|-----|-------|
| 대구지역          | 369 | 16.72     | 0.319 |      |     |       |
| 미국 캘리포니아 베이지역 | 98  | 12.30     | 0.702 | 5.19 | 465 | 0.000 |

#### 4) 가설검증

##### (1) 독립변인과 선별적 인공유산과의 상관관계 분석

그러면 지금부터 성비불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 도입한 가설을 중심으로 태아 성감별 후 인공중절수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경험적 검증을 하기로 한다.

표9는 대구지역 기혼여성들의 태아 성감별 후 인공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단순상관관계 분석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경우 성차별지수(0.4822), 아들의 필요성(0.3708), 임신 전 아들 낳는 노력(0.4818), 태아의 성감별(0.7006) 등이 태아의 성감별 후 인공유산을 실시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태아의 성감별과 선별적 인공중절수술과는 상당히 높은 정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10은 베이지역에 거주

**표9 대구지역 응답자의 상관계수**

| 연령            |           |              |             |         |           |            |            |           |               |
|---------------|-----------|--------------|-------------|---------|-----------|------------|------------|-----------|---------------|
| 응답자의<br>교육수준  |           | -0.3706**    |             |         |           |            |            |           |               |
| 남편의<br>교육수준   | -0.2782** |              | 0.7868***   |         |           |            |            |           |               |
| 소득            | 0.1370    | 0.1481       |             | 0.0468  |           |            |            |           |               |
| 성차별<br>지수     | 0.0476    | 0.0235       |             | 0.0651  | -0.1204   |            |            |           |               |
| 아들의<br>필요성    | 0.2337*   | 0.1518*      | -0.0540     |         | 0.0768    | 0.2004*    |            |           |               |
| 아들낳는<br>노력    | 0.0858    | -0.0457      | 0.0474      | -0.0426 | 0.5087*** | 0.2791**   |            |           |               |
| 태아<br>성감별     | 0.0763    | -0.0012      | 0.0467      | 0.0436  | 0.4742*** | 0.3386**   | 0.6337**   |           |               |
| 성감별 후<br>인공유산 | 0.0530    | -0.0267      | -0.0023     | 0.0648  | 0.4822*** | 0.3708**   | 0.4818***  | 0.7006*** |               |
| 주성장지          | 0.2286*   | 0.3540**     | 0.2350*     | 0.0672  | -0.1195   | 0.0153     | 0.0546     | 0.0127    | 0.0210        |
|               |           |              |             |         |           |            |            |           |               |
| 연령            |           | 응답자의<br>교육수준 | 남편의<br>교육수준 | 소득      | 성차별<br>지수 | 아들의<br>필요성 | 아들낳는<br>노력 | 태아<br>성감별 | 성감별 후<br>인공유산 |

\*: 0.05, \*\*: 0.01, \*\*\*: 0.001

표10 미국 캘리포니아 베이지역 응답자의 상관계수

| 연령            |              |             |           |           |            |            |           |               |
|---------------|--------------|-------------|-----------|-----------|------------|------------|-----------|---------------|
| 응답자의<br>교육수준  |              | 0.0623      |           |           |            |            |           |               |
| 남편의<br>교육수준   | 0.0727       |             | 0.7975*** |           |            |            |           |               |
| 소득            | 0.2939**     | 0.2884**    | 0.2590**  |           |            |            |           |               |
| 성차별 지수        | 0.0089       | 0.0301      | 0.2096*   | 0.0365    |            |            |           |               |
| 아들의 필요성       | 0.0413       | 0.1289      | 0.0316    | 0.0393    | 0.0441     |            |           |               |
| 아들낳는<br>노력    | 0.1752       | 0.1544      | 0.0634    | 0.1459    | 0.0498     | 0.0909     |           |               |
| 태아 성감별        | 0.2567**     | 0.1365      | 0.0827    | 0.0335    | 0.0200     | 0.1997*    | 0.3431**  |               |
| 성감별 후<br>인공유산 | 0.3097*      | 0.0027      | 0.0777    | 0.1542    | 0.0921     | 0.0823     | 0.1879    | 0.1936*       |
| 주성장지          | 0.2063*      | 0.1199      | 0.0785    | 0.0860    | 0.0369     | 0.1018     | 0.1632    | 0.1366        |
| 연령            | 응답자의<br>교육수준 | 남편의<br>교육수준 | 소득        | 성차별<br>지수 | 아들의<br>필요성 | 아들낳는<br>노력 | 태아<br>성감별 | 성감별 후<br>인공유산 |

\*: 0.05, \*\*: 0.01, \*\*\*: 0.001

하는 기혼의 한국동포 여성들의 태아 성감별 후 인공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베이지역은 성감별(0.1936)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관관계분석은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하지 않은 단순상관관계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좀더 설득력있게 경험적으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도입하여 두 지역 기혼여성들의 인공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자를 규명하였다.

## (2) 독립변인과 선별적 인공유산과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표11은 다른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하고 태아 성감별 후 인공유산을 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변수들에 대해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다. 태아 성감별 후 인공유산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등식에서 태아의 성감별 후 인공유산을 하는 것에 대한 대수승산(log odds)을 연령, 응답자의 교육수준, 남편의 교육수준, 가구당 월평균소득, 성차별 지수, 아들의 필요성, 임신 전 아들낳는 노력, 주성장

**표11** 연령, 교육수준, 소득, 성차별, 아들의 필요성, 성감별, 주성장지의 태아 성감별 후  
인공유산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 변수              | 대구지역                 |                          | 미국 캘리포니아 베이지역 |          |
|-----------------|----------------------|--------------------------|---------------|----------|
|                 | 회귀계수                 | 표준오차                     | 회귀계수          | 표준오차     |
| 연령              | 0.0018               | (0.0300)                 | 0.6406*       | (0.3217) |
| 응답자의 교육수준       | -0.1244              | (0.0924)                 | 0.1153        | (0.3679) |
| 남편의 교육수준        | 0.0155               | (0.0826)                 | 0.3047        | (0.2715) |
| 소득              | 2.03 <sup>E-07</sup> | (1.437 <sup>E-07</sup> ) | -0.0003       | (0.0003) |
| 성차별 지수          | 0.1878***            | (0.0335)                 | -0.2667       | (0.1685) |
| 아들의 필요성         | 0.4982***            | (0.2027)                 | -1.5859       | (1.2902) |
| 임신 전 아들낳기 위한 노력 | -0.5963              | (0.4014)                 | 5.2293        | (2.7288) |
| 성감별(있다=1, 없다=0) | 4.0288***            | (0.6571)                 | 4.3434        | (2.3818) |
| 주성장지            |                      |                          |               |          |
| 대도시=1           | -0.1350              | (0.3390)                 | 5.3537        | (3.0081) |
| 중·소도시=2         | -0.1021              | (0.3857)                 | 4.2391        | (2.9873) |
| (읍·면소재지 이하=0)   |                      |                          |               |          |
| 상수              | -9.9195              |                          | -27.5553      |          |
| 모델 $\chi^2$     | 259.654              |                          | 25.340        |          |
| 자유도             | 9                    |                          | 9             |          |
| P               | 0.0000               |                          | 0.0026        |          |
| 사례수             | 549                  |                          | 167           |          |

\*: 0.05, \*\*: 0.01, \*\*\*: 0.001

지, 성감별 등 9개의 독립변수와 회귀하였다. 표11의 계수들은 태아의 성감별 후 인공유산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태아의 성감별 후 인공유산을 하는 것의 대수승산의 효과를 나타낸다.

대구지역 여성들의 경우 연령, 교육수준, 소득, 임신 전 아들낳기 위한 노력, 주성장지 등은 태아의 성감별 후 인공유산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성차별지수는 태아 성감별 후 인공유산의 대수승산 (0.1878)을 상당히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소에 성차별을 많이 느끼는 대구의 기혼여성일수록 임신한 후에 태아의 성감별을 통하여 아들인지 딸인지 확실

하게 알아본 후 여아로 판명이 되면 다음에 아들의 선별적 출산을 위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인공유산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들의 필요성 역시 태아의 성감별 후 인공유산의 대수승산(0.4982)을 상당히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아들 하나는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일수록 태아의 성감별 결과 여아로 판명되면 소규모가족 속에서 아들 하나는 낳아야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사고에서 인공유산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성감별 역시 태아의 성감별 후 인공유산의 대수승산(4.0288)을 상당히 증가시키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 밝혀졌다. 즉 대구여성들은 성감별을 통하여 소규모 자녀 속에서 그들이 희망하는 아들 하나는 낳겠다는 계획을 실천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베이지역 한국동포 여성들의 경우에는 태아 성감별 후 인공유산에 대한 대수승산을 9개의 변수와 회귀한 결과 연령을 제외한 나머지 8개의 변수는 태아 성감별 후 인공유산의 대수승산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연령만이 태아의 성감별 후 인공유산의 대수승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많을수록 태아의 성감별 후 인공유산을 시도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기대한 바와 같이 미국 캘리포니아 베이지역에 거주하는 한국동포 여성들 가운데는 아직도 한국의 문화적 특성 중에 하나인 아들을 선호하는 의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아들을 낳기 위하여 실천하는 면에서는 대구지역 여성들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5. 맷는 말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의 출생시 성비는 198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 이후 거의 117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1985년 이후 120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 이민해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출생시 성비는 같은 기간동안에 106과 107을 나타내고 있는데(U.S. Dept. of Commerce, Economics and Statistics, 1995) 이러한 출생시 성비는 같은 기간동안의 한국사회 전체의 출생시 성비 111~116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대구지역 기혼여성 응답자와 미국 캘리포니아 베이지역 여성 응답자들 사이의

여성에 대한 성차별의식 정도를 비교해 본 결과 우리가 예측했던 바와 같이 대구여성들이 베이지역의 한국동포 여성보다 성차별을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임신 전 아들을 낳기 위한 노력도 대구여성들이 베이지역의 한국동포 여성보다 두 배 정도 더 기울이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특히 임신이 되었을 때 태아를 성감별한 후 여아로 판명되면 다음에 아들을 낳기 위하여 선별적 인공중절 수술을 실제로 수행한 대구여성들이 베이지역 여성보다 약 여섯 배나 높게 나타났다. 아들 하나는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과 임신이 된 후에 태아의 성감별을 시도해 본 경우는 두 지역간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다지 크지는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출생시 성비의 불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별적 인공유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설의 경험적 검증결과 대구지역 기혼여성들의 경우 태아의 선별적 출산을 위하여 성감별 후 인공유산을 시도하는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성차별의 정도, 아들의 필요성, 성감별 등으로 밝혀졌으며 이들 변수들은 대구지역 기혼여성들이 성감별 후 인공유산을 시도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캘리포니아 베이지역의 한국여성의 경우 연령만이 태아 성감별 후 인공유산을 시도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본 연구결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즉 대구지역의 출생시 성비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다른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강하게 남아있는 유교적 전통에서 비롯되는 아들선호의식에서 출발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아들선호는 사회계층, 연령, 교육수준의 차이를 막론하고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공유산 허용에 대한 법적용이 비교적 엄격하고 태아의 성감별을 통한 의도적인 인공유산을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우리 사회보다 상대적으로 덜 용납하는 미국 사회의 일반적인 분위기는 미국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다른 민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아들선호도를 간직하고 있는 한국동포라 하더라도 아들을 낳기 위한 목적으로 선별적 인공중절수술을 실천하는 경우는 한국에 거주하는 기혼여성들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우리나라의 출생시 성비의 불균형, 특히 대구지역의 출생시 성비불균형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이러한 출생시 성비불균형 문제를 완화 내지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출생시 성비불균형의 지나친 불균형을 완화 내지 지양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보면 남아를 선호하는 인식들의 변화와 태아의 성감별을 통한 선별적 출산을 균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의 모색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남아를 선호하는 의식을 전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완책과 더불어 딸이 아들에 견주어 결코 못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정부가 제시해 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기관과 공신력이 높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남아선호에 따른 지나친 성비의 불균형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문제가 결과적으로는 개개인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홍보활동 역시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나아가 태아도 하나의 귀중한 생명체라는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우는 교육 내지 홍보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때 남아를 낳기 위하여 선별적으로 행해지는 인공중절수술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와 같은 의식개혁과 더불어 성비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좀더 구체적인 해결방법으로는 의료계 주위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태아의 성감별과 그에 따른 선별적 인공중절수술을 균절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산원 및 산부인과 전문의 특히 개업의와 같은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인공중절수술에서 야기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일 못지않게 일부의 의료인에 한정되긴 하겠지만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양심회복을 통한 의식개혁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그 다음으로는 태아의 성감별과 이에 따른 선별적 인공중절수술에 대하여 좀더 엄격한 법적용과 규제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초음파기와 같은 현대 의료기술의 발달은 출생시 성비불균형의 근원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것은 단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것을 쉽게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수단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기술을 용도에 맞지 않게 악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즉 의식의 전환이 좀더 큰 선결문제이며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행정의 책임자, 매스미디어, 부모, 그리고 의료인들의 많은 노력과 지지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Chahnazarian, 1991).

사회의 모든 균원은 가족제도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부터 아들과 딸의 차별을 두지 않음으로써 자라나는 자녀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남녀가 평등함을 익히고 생활화하는 여건조성이 요구되며 이와 같이 가정에서부

터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이 사라질 때 남아를 선호하는 의식의 변화는 좀더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야기되었던 연구방법상의 제한점으로는 자료수 집상의 어려움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베이지역의 연구대상을 대구출신으로 한정시키지 못한 점과 베이지역의 사례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미국 캘리포니아 베이지역에 거주하는 기혼여성들이 가지는 아들선호도와 아들을 낳기 위한 실천의지 등을 대구지역 기혼여성들과 비교함으로써 그동안 막연하게 유추해 오던 대구지역의 출생시 성비가 지나치게 높은 이유를 부분적이긴 하지만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경제기획원(1966),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 제1권 전국편.
- \_\_\_\_\_ (197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 제1권 전국편.
- \_\_\_\_\_ (1975),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제1권 전국편.
- \_\_\_\_\_ (198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제1권 전국편.
- \_\_\_\_\_ (1985),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제1권 전국편.
- 공세권 외(1992),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 〈1991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소.
- 권태환·김두섭(1990), 《인구의 이해》, 서울대출판부.
- 김두섭(1994), “한국인구의 성비불균형 현상”, 《한국사회학회지》.
- 김일현(1990), “우리 나라의 출산성비분석”, 《우리 나라 인구변동의 분석》, 한국보건연구원, pp. 133~154.
- 김일현·최봉호·이상식(1990), “남아선호의 결정요인 및 영향력 분석”, 《보건사회논집》: 56~82.
- 김태현(1993), “저출산수준과 강한 남아선호관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 성·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회지》 16권 2호: 1~23.
- 김한곤(1994a), “여성의 지위와 출산력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인구학회지》 17권 2호, 한국인구학회: 21~43.
- 김한곤(1994b), “성비불균형이 가져오는 새로운 증후군들”, 《가정의 벗》 7월호: 26~33.
- 김한곤(1995), “대구·경북지역의 출생시 성비불균형의 실태와 문제점”, 《인문연구》,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제16집 제2호: 253~266.
- 박경애(1993), “임산부의 자녀관: 성선호와 임신동기”, 《대한가정학회지》 제31집 제1호: 25~33.
- 박재빈(1984), “아들선호로 인한 과잉출산수의 추정”, 《인구보건논집》 제9집 제1호: 1~13.
- 박재빈·조남훈(1994), “Gender Preference and Sex Imbalance in the Population and Their Implications in Korea”, 《한국인구학회지》 제17집 제1호: 87~112.
- 이수건(1979), 《영남사립파의 형성》,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이홍탁(1987), “남아선호가 출산행태 및 가족규모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출산력 변동과 전망》, pp. 54~61.
- 이홍탁(1987), 《한국의 출산력 변화와 전망》, “아들선호가 출상행태 및 가족규모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보건연구소.

- 조남훈·서문희(1992), 『성비의 불균형 변동추이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학중·김태현(1994), “남녀인구의 불균형추이와 사회문제의 전망”, 한국인구문제심포지엄.
- 지하룡·박재용(1988), “종합병원 출생아의 성비에 관련된 요인”, 《한국인구학회지》 제11권 제2호: 67~76.
- 최인현·김한곤(1993), “한국에 있어서 급속한 출산율 저하의 영향 -문제점 및 대책-”, 《보건사회논총》 제13권 제1호: 141~159.
- 통계청(1992), 〈1991년 인구동태 통계연보〉.
- \_\_\_\_\_ (1993), 〈1992년 인구동태 통계연보〉.
- \_\_\_\_\_ (1994), 〈1993년 인구동태 통계연보〉.
- \_\_\_\_\_ (1995), 〈1994년 인구동태 통계연보〉.
- \_\_\_\_\_ (1996), 〈1995년 인구동태 통계연보〉.
- Chahnazarian, Anouch (1991), “Determinants of the Sex Ratio at Birth: Review of the Recent Literature”, *Social Biology* 35: 214~235.
- DeSilva, W. I. (1992), “Relationship of desire for no more children and socio-economic and demographic factors in Sri Lankan Women”, *Journal of Biosocial Science* 24: 185~199.
- Freedman, Ronald (1986), “Policy options in Taiwan after the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2(1): 77~100.
- Gu, Baochang (1994), “Synthesis of findings of 8 Country Reports: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rograms”, CPIRC/China, Unpublished.
- Gu, Baochang and Li Yong Ping (1994), “Sex ratio at birth and son preference in Chin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Issues Related to Sex Preference for Children in the rapidly Changing Demographic Dynamics in Asia, Seoul, November 21~24.
- Hull, Terence H. (1990), “Recent trends in sex ratios at birth in Chin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6: 63~83.
- Johansson, Sten and Ola Nygren (1991), “The missing girls of China: a new demographic account”,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7: 35~51.
- Lee, H. T. (1982), “Causes of Son Preference in Korea: A Socio-demographic Analysis”, A Research Report to W. H. O.
- Lee, H. T. and Eun-Hyun Choe (1982), “Roots of Son Preferences”, *Journal of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 2, No. 2: 127~144.

- Li Yongping(1992), "Sex Ratios of Infants and Relations with Some Socio-economic Variables: The Results of China's 1990 Census and Implication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eminar on China's 1990 Population Census, 19~23, October, Beijing.
- Poston, Dudley L. Jr., Peihang Peggy Liu, Baochang Gu. (1995), "Son Preference and the Sex Ratio at Birth in China: A Provincial Level Analysis",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San Francisco, California, April 6~8.
- United Nations(1987), *World Population Trends and Policies*.
- U.S. Department of Commerce(1995), *Economics and Statistics*.
- Vlassoff, Carol(1991), "Progress and stagnation: Changes in fertility and women's position in an Indian village", *Population Studies*. 46: 195~212.
- Weeks, John R. (1986), *Population: An Introduction to concepts and Issues*, Belmont: Wordsworth Inc.
- Zeng Yi, Tu Ping, Gu Baochang, Xu Yi, Li Bohuaa, Lu Yongping(1993), "Causes and implications of the recent increase in the reported sex ratio at birth in Chin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19, No. 2.

**abstract**

---

**Determinants of Sex-Selective Induced Abortion Among Married Women**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aegu & Bay Area in California, USA

Han-Gon Kim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eterminants of sex ratio imbalance at birth in Taegu which has experienced the extremely imbalanced sex ratio at birth since mid-1980s. This paper attempts to compare the determinants of sex ratio imbalance at birth, such as sex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son preference, prenatal sex identification follows by sex-selective induced abortions, among married women aged 25 to 44 in Taegu with those in Bay area, California in USA. The research is based on the survey data which were conducted in Taegu, Repulic of Korea and Bay area, California in USA.

The findings of this analysis suggest that married women in Taegu are more likely to feel sex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an married women in Bay area. Furthermore, the percentage of married women's effort for son bearing before pregnancy is much higher than that of married women in Bay area. We also have found that the percentage of sex-selective induced abortion in Taegu is six times higher than that of married women in Bay area.

According to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determinants of sex-selective induced abortion among married women in Taegu ar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son preference, prenatal sex identification. On the other hand, age is the only variable which has an important impact on sex-selective induced abortion among married women in Bay area.

From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 can conclude that son preference

based on Confucianism is the most important impact on sex ratio imbalance at birth in Taegu where son preference is much stronger than other regions in Korea. The phenomenon of extremely imbalanced sex ratio at birth in Taegu is the result of combination of these factors, such as strong son preference, seeking to have at least one son within small family size, and prenatal sex identification followed by sex-selective induced abortion.